

# 3명 후보 모두 20%대 지지율...절대 강자는 없었다

## 3자 가상 대결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신수정·문상필·김동찬 후보를 대상으로 한 3자 가상 여론조사에서 신수정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문상필, 김동찬 후보가 뒤를 바짝 따라붙는 추격 구도가 형성됐다.

세 후보 모두 20%대 지지를 받았지만 이외 인물과 무응답층 비율도 적지 않아 판세는 여전히 유동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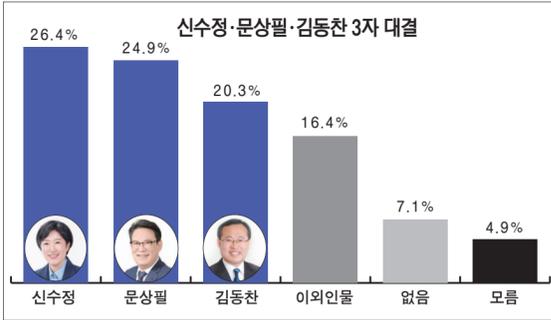
25일 광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4.4%p) 결과에 따르면 '신수정·문상필·김동찬 후보간 3자 대결'에서 신수정 후보가 26.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문상필 후보는 24.9%, 김동찬 후보는 20.3%로 뒤를 이었다.

1~3위 상위권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신수정 후보와 문상필 후보 간 격차는 1.5%p에 불과해 오차범위 내 접전이고, 김동찬 후보도 20%대를 유지하며 선두권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붙고 있다.

세 후보 모두 20%대에 머물며 뚜렷한



신수정 26.4%·문상필 24.9%·김동찬 20.3%

이외 인물·무응답층 비율 높아 판세 유동적

男 신수정·女 문상필 우위...성별 차이 뚜렷

우위 없이 맞붙은 구도다. 26.1%로 가장 높았고 김동찬 24.0%, 문상필 21.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에서는 문상필 후보가 27.9%로 앞섰고 신수정 26.7%, 김동찬 16.8%로 집계됐다. 성별에 따라 선호 후보가 달라지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신수정 후보가 28.9%로 가장 높았고 문상필 27.6%로 뒤를 이었다. 30대에서는 문상필 후보가 29.9%로 앞

섰고, 5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신수정 후보가 27~28%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흥·문흥·두암동 등 '지역 1'에서 문상필 후보가 29.9%, 신수정 후보가 28.4%로 접전을 보였고, 용봉·운암·일곡동 등 '지역 2'에서는 신수정 후보 24.9%, 김동찬 후보 24.8%로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위 3명이 20%대에서 맞붙은 가운데 부동층 비중이 적지 않아 판세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후보 간 격차보다 유권자의 선택 여지가 더 크게 남아 있는 구도로, 향후 변수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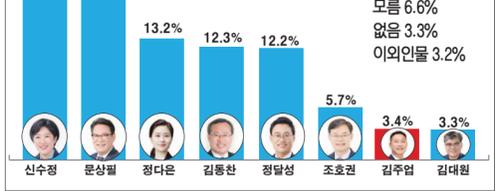
한편, 이번 조사는 광남일보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0~21일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100%)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6년 2월 말 기준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북구청장 후보 적합도



## 신수정·문상필 0.8%p 차 '접전' 정다은·김동찬·정달성 뒤쫓아

### 북구청장 후보 적합도

6·3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북구청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신수정 후보와 문상필 후보가 0.8%p차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정다은 후보, 김동찬 후보, 정달성 후보가 10%대 지지율로 밀집하며, 뚜렷한 선두주자 없이 오차범위 내 접전 구도를 형성했다.

25일 광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신수정 후보(18.8%)와 문상필 후보(18.0%)가

연령별로 봤을 때 18세 이상과 20대에서는 신수정 후보가 21.7%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30대는 정다은 후보(19.9%), 40대는 정달성 후보(24.3%), 50대는 문상필 후보(20.9%), 60대는 문상필 후보(16.9%), 70대 이상은 신수정 후보(21.9%)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북구갑에서는 문상필 후보가 22.3%로 가장 높았다.

신수정 후보(19.7%), 정다은 후보(16.0%), 김동찬 후보(9.9%), 정달성 후보(9.6%), 김대원 후보(4.1%), 조호권 후보(3.9%), 김주업 후보(3.0%)가 뒤를 이었다.

북구을에서는 신수정 후보가 18.0%로 선두를 달렸고, 문상필 후보(18.8%)와 문상필 후보(18.0%)가

(14.2%), 정달성 후보(14.2%), 정다은 후보(11.2%), 조호권 후보(7.2%), 김주업 후보(3.8%), 김대원 후보(2.7%) 순으로 집계됐다.

민중당 지지층에서는 신수정 후보(20.1%), 문상필 후보(19.5%), 정다은 후보(15.3%), 김동찬 후보(14.4%), 정달성 후보(12.1%), 조호권 후보(6.0%), 김대원 후보(4.0%), 김주업 후보(1.3%)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유일한 진보당 소속 김주업 후보는 진보당 지지층으로부터 41.1%의 지지를 기록했다.

정달성 후보는 23.3%, 조호권 후보(3.4%), 김대원 후보(3.3%) 순이었다. '이외 인물'과 '없음·모름'은 각각 3.2%와 9.9%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북구청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지지가 집중된 구도라기보다 상위 후보들 사이의 경쟁 구도 속에 중위권 후보자들이 추격하고 있는 구도임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북구청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지지가 집중된 구도라기보다 상위 후보들 사이의 경쟁 구도 속에 중위권 후보자들이 추격하고 있는 구도임을 보여준다.

변수는 문인현 북구청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고심했던 문정장이었지만,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 속에 특별시장 및 3선 도전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그와 지지층의 표심이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도 후보들 사이의 합종연횡, 지지 선언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지역 현안 해결 능력' 45.6% 1순위

### 후보 선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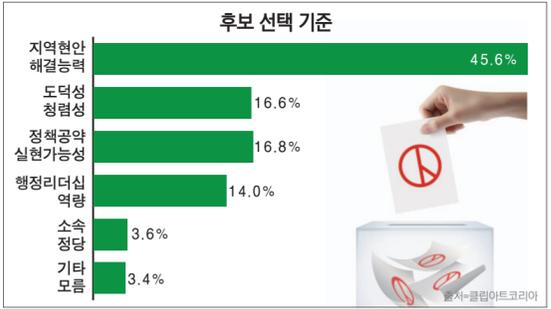
광주 북구 유권자들은 자기 구청장 선택 기준으로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북구청장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점을 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이 45.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16.8%), 도덕성·정렴성(16.6%), 행정·리더십 역량(14.0%) 순이었다. 소속 정당을 지지후보 선택 기준으로 삼은 유권자는 3.6%, 모름 또는 기타 응답은 3.4%였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이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후보자의 잣대로 삼았다고 답했다.

만 18세 이상과 20대는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17.9%), 30대는 행정·리더십 역



도덕성·행정·리더십 역량도 판단 기준

소속 정당 3.6% 불과...자질 중시 뚜렷

량(14.7%), 40대는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32.6%), 50대는 행정·리더십 역량(21.6%), 60대는 도덕성·정렴성(20.9%)을 2순위로 뒀다. 70대 이상은 도덕성·정렴성(29.1%)과 지역 현안 해결 능력(29.1%)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뒀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지역 현안 해결 능력(48.1%)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도덕성·정렴성(17.4%),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16.9%), 행정·리더십 역량(11.4%), 소속 정당(3.3%) 순이었다. 여성 응답자도 지역 현안 해결 능력(43.1%) 가장 우선으로 뒀다.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은 16.8%, 행정·리더십 역량은 16.4%, 도덕성·정렴성은 15.8%, 소속 정당은 3.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갑·을 선거구 모두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민중당 지지층이 압도적인 가운데 '소속 정당'을 꼽은 응답자가 3.6%에 그쳤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는 평가다.

차기 구청에 대해 정당과 진영 같은 정치적인 배경보다는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능력과 함께 공약의 완성도, 행정력, 추진력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뚜렷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광남일보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0~21일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100%)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6년 2월 말 기준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민주당 압도...북구 지지율 79%

국민의힘·진보당·조국혁신당 순...한자릿수 경쟁

### 정당지지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실시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광주 북구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4.4%p)를 실시한 결과,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79.0%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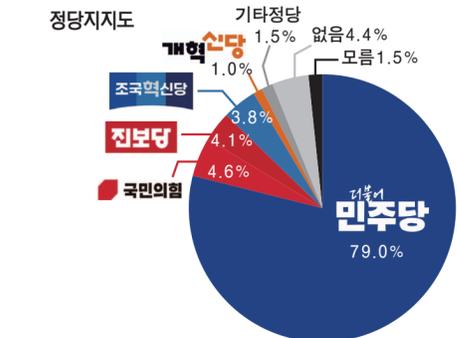
이해 국민의힘 4.6%, 진보당 4.1%,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0%, 기타정당 1.5% 등으로 집계됐다. '없음과 모름' 응답은 각각 4.4%, 1.5%였다.

모든 계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77.4%)보다 여성(80.6%)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87.8%), 70대 이상(86.5%), 50대(80.1%)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30대(64.7%), 만18~29세(73.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40대는 79.4%였다.

지역별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중 북구갑인 '지역 1'(80.6%)이 북구를 선거구인 '지역 2'(77.9%)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이처럼 광주북구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6·3지방선거에서도 본선보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했다. 민주당에 이어 정당지지도 2위를 기록한 국민의힘이나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은 한자릿수에 그쳐, 이를 지방선거 성과로 연결하기까지는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

### 어떻게 이뤄졌나

광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2026년 3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남성 280명, 여성 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국내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했으며,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였다.

통계보정은 2026년 2월 말 기준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다.

조사내용은 △후보 선택기준 △후보 적합도 △민중당 후보 적합도 △3자 대결 정당지지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